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융중심지지원센터,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

- 금감원은 최근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진출대상 국가의 금융관련 법규, 인허가 제도 및 영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.
 - 이 같은 방안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진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글로벌화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금융관련 법규 등 진출 대상국에 대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호소한 데 기인함.
- 최초 발간물은 진출수요가 높은 중국지역의 인허가 편람을 시작으로 기존 외국 금융법규 DB를 확충하는 한편, 현지 임직원의 생활편의를 위한 국제학교에 대한 정보도 추가함.
 - 인허가 업무편람은 중국의 금융산업의 개요, 은행, 보험, 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인허가 요건 및 절차, 제출서류, 기타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국문으로 발간한 것임.
 - 외국법규의 경우에는 최근 해외진출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11개국(17개 법규)에서 14개국(46개 법규)으로 확충하고 제공범위도 은행에서 보험, 금융투자, 여전으로 확대함.
 - 또한 해외 근무 임직원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국, 베트남의 국제학교 등에 대한 소재지, 연락처 등의 현황 자료도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://www.fnhubkorea.kr>)를 통해 상시 제공함.
-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서는 앞으로도 해외진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임.
 - 현재 중국 다음으로 금융회사의 수요가 많은 베트남 금융법규의 국문번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, 인허가 업무편람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임.

(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,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, 8/14)